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현대시 교육 연구

정재찬*

<차 례>

- I. 머리말
- II. 텍스트와 상호텍스트 읽기
- III. 맺음말

I. 머리말

시를 가르치는 중등학교 현장의 일반적 모습은 단원의 제재로 선택된 시 하나하나를 교사가 꼼꼼히 해설하면서 학생들의 이해와 감상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예를 들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제재로 등장하면 교사는 그 시의 운율, 시어, 표현상 특징, 구성, 주제 등은 물론, 시의 문학사적 의의, 시인의 생애와 특징,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다양한 비평가들의 견해까지 <진달래꽃>과 관련해 가르칠 수 있고 또 가르쳐야 할 충분히 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를 낱알이 전달하고자 애쓴다. 이 때 교사는 마치 다다익선(多多益善)을 추구하는 듯하지만, 학생들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표정으로 대하곤 한다. 게다가 교실에서 배우는 시들은 학생들의 문화적 코드와 감수성에는 거리가 먼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우리 시 수업은 교사나 학생에게나 한 마디로 말해 버겁다.¹⁾

* 청주교육대학교

1)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 덕택에 현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히 학생의 편에서 시는 더 이상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힘든 과업으로만 기억될 따름이다. 물론 이 때 과업이라 함은 시험이라는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책무를 가리킨다. 그런데 그 또한 쉽지가 않다. 교사와 학생 모두 열심히 <진달래꽃>을 가르치고 배웠건만, 정작 시험에 동일한 시인의 다른 작품, 가령 <산유화>만 나와도 학생의 편에선 그 동안 배운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을 맞본다. 더욱이 수능 이후의 시험들은 결코 <진달래꽃> 하나만 단독으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익숙하고 혹은 낯선 시들과 함께 복합 지문을 구성하여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소설과, 영화와, 다른 예술 작품과 대비하는 문제까지 출제된다. 이 사태 앞에서 학생들은 낭패와 열패감에 처하게 된다. 학생들 편에서는 배운 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배우지 않은 작품이 출제되었다고, 교과서의 출제라며 항의하고 하소연 한다.

물론 이들의 항의는 잘못이다. 수학 시간에 2+3을 가르치고 시험에는 3+5를 출제했다 하여, 혹은 미분과 적분을 함께 응용한 문제를 출제했다 하여 항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항의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 비록 수학의 원리와 지식이 문학 작품의 그것과 결코 같은 성격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수학 수업은 덧셈의 능력을 문제 삼는 데 비해 문학 수업은 해당 텍스트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급급할 뿐, 텍스트 능력 및 상호 텍스트 능력을 길러주는 데는 실패한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섭렵과 주해의 반복적 훈련이 시에 눈을 뜨는 데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체계이어서 그 투자 대비 효과는 별로 높은 것 같지 않다. 이에 낱알의 작품을 낱알이 읽어야 한다는 발상에서 먼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각각을 앞으로써 둘 사이의 관계

작품의 섭렵과 주해라는 이런 현상은 적어도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에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본고는 당위보다 현실에서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시의 감상과 향유, 내면화 등등의 목표와 입시를 위한 시 읽기 및 실체 중심 시 읽기가 반드시 이율배반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원래 신비평의 꼼꼼히 읽기(close reading)가 애매성(ambiguity)이나 수사학 분석을 통해 지향했던 것이야말로 시의 풍요로운 감상이었다. 분석을 통해 흥미와 감동을 주는 시교육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재찬(1995) 참고 바람.

를 아는 것도 길이지만, 둘 사이의 비교를 통해 각각을 알게 되는 것도 학습의 유력한 길이다.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하는 시 교육은 텍스트의 상호관련성만이 아니라 그 각각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예술적 감식안 역시 예술 텍스트 간의 관계, 그들 사이의 비교와 대조, 즉 사이와 차이를 인식하는 데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걸작들만 섭렵하다 보면 그것이 왜 걸작인지 오히려 알지 못한다. 따라서 미술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화집을 통해 대가의 걸작만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술관에 가서 미술사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는 가운데 동시대의 군소작가와 나란히 걸려 있는 대가의 그림을 볼 때 비로소 그의 위대함이 눈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유사한 미학적 상상력을 발견하기도 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만의 미적 선호도를 갖게도 된다.

우리의 문학교실도 살아 있는 미술관이 되어야 하며 문학교사는 큐레이터 혹은 미술관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 문학에는 많은 사이와 차이, 그로부터 빚어지는 많은 대화와 논쟁거리들이 있다. 한편으로는 소통이 되는 듯 서로 공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메울 수 없는 틈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작가와 작가, 작품과 작품, 독자와 독자, 비평가와 비평가 사이는 물론이려니와, 작가와 독자, 작품과 독자, 비평가와 독자 사이에도 수많은 틈이 있다. 시대와 장르에 따른 사이와 차이도 있다. 그뿐이 아니라 경계를 넓히면 성, 종교, 인종, 세대, 계층에 따라 문학은 모습을 달리 하며, 문학과 예술, 문학과 대중문화, 문학과 현실 등등 우리가 대화하고 따져보고 논쟁해야 할 거리들은 무궁무진한 셈이다. 그러나 의외로 분석적 읽기를 포괄하면서도 문화적 배경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시 감상 텍스트, 나아가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역동적 관계에 주목하는 시 해설 텍스트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²⁾ 그러니 교사를 탓할 수가 없다.

2) 참고서 형태의 시 해설서나 앤솔로지 형태에 가까운 김홍규(1982) 및 한계전(1996) 등을 제외할 때, 학교 현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시 해설서로는 김상욱(1998)과 신경림(2000)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시와 삶의 풍부한 연관을 진술하고 맛깔난 문체로 담아냄으로써 시 감상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분석적 읽기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본고는 교육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육용 시 텍스트 해설 제공을 목적으로 삼는다. 실제 중심과 속성 중심, 그리고 활동 중심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감상하며 나아가 문학 및 문화 텍스트와의 상호 텍스트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³⁾ 이에 본고는 김광규의 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이호철의 소설 <탈향>, 그리고 송수권의 시 <면민회(面民會)의 날>을 각각, 또 상호 교직하여 읽어 보도록 하겠다. 먼저 그 각각을 읽을 때 구조와 내용 분석을 기본으로 작품과 학생 사이의 시대와 문화적 코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작품 읽기를 내러티브 형식으로 시도할 것이다. 아울러 개별 텍스트를 읽는 이 단계에서도 다른 텍스트나 장르, 매체 등과의 교섭 관련을 다룰 것이다. 그런 다음, 이 텍스트들 사이의 상호텍스트 관계를 다루는 단계에서 이처럼 작가들의 문학적 지향이 서로 다르고 문학사적으로도 서로 별 연관이 없어 보이는 텍스트들이 실은 이인 삼각(二人三脚)의 관계처럼 얹혀 있음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 선택은 시대와 장르를 뛰어넘는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하게 하기 위함이지니와, 이는 궁극적으로 문학교육의 독자적 관점에서 문학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길 바란다.

II. 텍스트와 상호텍스트 읽기

1. 노래와 이야기 사이 :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읽기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김광규

4·19가 나던 해 세밑

3) 정재찬(2006)은 김광규의 <설야>를 실제 중심, 속성 중심, 활동 중심으로 각각 나누어 접근한 것이다. 본고는 그 작업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혜화동 로우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회비를 만 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몇이서는 포우커를 하러 갔고
 몇이서는 춤을 추러 갔고
 몇이서는 허전하게 동승동 길을 걸었다
 돌돌 말은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꺾전으로 흘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히 높이로 발을 옮겼다

—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 문학과지성사, 1979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읽히도록 시를 쓴다는 것은 미덕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 전통적인 서정시의 고답함도, 모더니즘 시의 난해함도 없는, 수필을 쓰듯 그저 일상어에 가까운 시어들로 이루어진 시, 하지만 이 평이한 시가 주는 감동은 경이적이다.⁴⁾ 시이긴 하되 짧은 서정시와도 다르고, 서사적이되 소설과도 다른, 함축적이면서도 이야기를 듣는 듯한, ‘노래’와 ‘이야기’ 사이의 묘한 매력을 이 작품은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가 쉽게 읽히는 것이 단지 그 내용의 평이함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은 교묘하게도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겉으로는 2연 49행으로 이루어진 긴 산문시 같지만 시상의 전개를 고

4) 김광규 시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그의 시 속에 나타나는 일상성, 구체성, 평이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추구하는 서정적 진실은 일상성을 통한 인생의 보편적 가치 탐구인 것으로 평가된다. 성민엽 편(2001)을 참고할 것. 그의 일상성을 탐구한 연구로는 홍윤경(2002), 안은희(2002), 이미순(2004) 등을 들 수 있다.

려하면 과거 회상(1행-19행)과 현재(20행-37행)와의 뚜렷한 대비, 그리고 그에 대한 시적 화자의 감상(38행-49행)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 구조적으로 보면 10구체 향가나 시조의 형식에 맥이 닿아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시는 첫 부분이 19행, 둘째 부분이 18행으로 향가나 시조처럼 거의 균등하게 분량이 조정되어 있다. 물론 셋째 부분을 다시 나누어 45행 또는 47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넷째 부분으로 보는 4분법도 가능하다. 이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가-승-전-결의 구조에 해당한다. 어느 쪽이든 이 시인은 우리에게 친숙한 전통 시가나 설화의 구조를 원형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49행이나 되는 모던한 외형 속에 슬그머니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그는 낯설 속에 친숙함을 심어 놓았다.

반면에 이 시에는 친숙함 속에 낯설게 하기의 장치가 들어 있기도 하다. 제목부터 따져 보자. 왜 이것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란 말인가? 연애시의 제목 같지 않은가? 오래 전 일이지만, 떠나간 옛사랑을 잔잔하게 회억하는 내용의 텔레비전 단막극, 당시 신인 탤런트였던 양미경이 주인공으로 데뷔한 드라마 제목이 바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이었다. 그렇다면 그 드라마의 작가는 김광규 시의 내용을 모른 채 제목만 잘못 빌려온 것일까? 그렇지 않다.

실은 김광규야말로 다른 곳에서 이 제목을 빌려 온 것이다. 멕시코 출신의 3인조 트리오 ‘로스 트레스 디아망테스(Los Tres Diamantes)’가 발표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라틴음악의 고전, <루나 레나(Luna Llena)>의 한국어 개사 작품 제목이 바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였던 것이다. ‘푸른 저 달빛은 호숫가에 지는데 / (중략) / 옛사랑 부를 때 내 곁엔 희미한 그림자 / 사랑의 그림자여’로 가사를 붙인 이 곡은 우리나라 가요계에 중창단 전성시대를 열었던 ‘블루벨즈’란 그룹이 1969년도에 발표한 번안곡으로서 원곡에 못지않은 감미로운 화음과 근사한 휘파람 소리로 인해 적지 않은 호응을 얻은 작품이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자면, 김광규야말로 대중에게 사랑 노래로 잘 알려진 친숙한 제목을 따다가 낯설게 하기를 시도한 셈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독자들이 이 시를 읽는 동안, 아련한 옛 추억을 더듬는 원곡의 은은함을 배경 음악으로 삼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었을

터이다. 하지만 이제는 독자 대중이 변하였으니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된 셈이다.⁵⁾ 그래도 수업 시간에 이 시를 읽으며 옛 라틴 가요 한 곡 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 작품에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여러 가지 비교와 대조의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별똥별’과 ‘늑’으로 수렴되고 집약된다. 그러나 그에 반해 일반적으로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고 넘어가는 시어가 있는데 이 시에 등장하는 ‘노래’와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젊은 날 이들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노래’를,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를 불렀고 그것이 ‘별똥별’이 되었다. 하지만 기성세대가 되어 그들은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뿐,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것이다. 시인은 바로 이 ‘노래’의 여부에 따라 세태를 구분하고 있음에 우리는 마땅히 주목해야 한다. 시인에 따르면 ‘노래’는 ‘별똥별’이고 ‘노래’가 없는 것은 ‘늑’이 된다. 왜? 그는 시인이니까. 시인은 노래하는 자이니까. 그런데 그는 또 왜 이렇게 이야기 같은 시를 썼나? 그것이 이 시를 읽는 흥미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시를 조금만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 전반부에서 이들은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 무엇을 하겠노라 다짐했다. 그 결과 그들은 정말 정치와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혁명이 두려운 세대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물론 아이러니다. 탈정치도 정치다. 정치적 무관심은 결국 보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이 젊은 시절 바랐던 것은, 탈정치나 정치에 대한 환멸을 넘어, 정치보다 더 영원한 가치, 정치를 초월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것은 ‘문학’과 ‘예술’ 같은 것이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엄혹함은 그런 약속과 다짐을 한갓 꿈으로 만들고 만다. 그들은 취직을 해야 했고, 먹고 살기 위해, 아니 ‘살기 위해 살고’

5) 요즘은 이 시의 제목을 원조로 알고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이런 배경 지식을 몰라도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는 별로 영향이 없음을 물론이다. 하지만 이런 문화적 배경을 알게 되면 시 감상이 더 친근해지고 시인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며 감상이 풍부해지게 된다.

있었으며, 그러다 보니 필경 젊은 시절의 꿈들은 잊힌 채, 그리하여 아무도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홀로 시인이 되어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은 어떨까?

그보다 먼저 도대체 이 시에서 시인은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아보자. 두 연으로 구분된 이 시를 굳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마지막 부분이야말로, ‘우리’의 일원이면서 ‘우리’로부터 약간 멀찍이 떨어진 시인의 모습이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 셋째 부분이 시작하는 38행 바로 앞을 보라. 그들 중 몇은 ‘포커’를 하러 가고, 몇은 ‘춤’을 추러 갔지만, 몇은 허전하게 옛사랑을 찾아 ‘동승동’ 길을 걷는다. 그런데 전자에 대한 묘사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아 시인은 그 마지막 부류에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 부류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순수하거나 좀 덜 출세했을 성싶다. 그것은 ‘돌돌 말은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가는 모습에서 잘 알 수가 있다. 연말이면 열리는 동창회에 나가, 한편으론 반갑게 친구를 맞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성공한 친구들에게 주눅 들고, 그러면서도 고맙게 달력 한 장 얻어다 돌아오는 길, 구부정한 어깨에 약간은 술이 취한 시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⁶⁾ 비록 이 친구들 역시 기성세대의 일원이 되긴 하였지만, 그래도 이들은 포커나 춤을 찾지 않고 옛 순수와 열정을 찾아 밤늦은 시각에 대학가를 거닐어 보는 것인데, 그곳조차 이미 옛 모습을 잃어버린 채 오직 플라타너스 가로수만이 그 자리에 남아 이들을 꾸짖는다. 이진 다소 억울한 일이다. 포커 치고 춤추러 간 무리들은 잘도 살건만 그나마 순수한 마음을 유지한 이 소시민, 이 시인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꼴인 것이다. 하지만 진짜 큰 죄인들은 죄의식도 없는 것처럼 그것조차 일상의 진실이 된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이 구절은 우리 시가 성취한 가장 값진 반복 중의 하나로 기록되어야 옳다. 반복되

6)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 ‘달력’이 갖는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달력이란 요즘에야 흔하다 흔한 것이지만, 이 당시에는 성공한 친구 또는 친지로부터 연말에 선물로 받는, 제법 구하기 힘든 물건이었다.

는 이 시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복에 반복을 거듭해 읽어가면서 가슴이 서늘해지고 울컥했는지 모른다. 시인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노래를 잃어버린 세대. 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 이야기만 하는 세대.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시인만이, ‘이야기’를 일삼는 친구들을 멀리하고 홀로 ‘노래’를 해야 했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시인은 그 부끄러움을 인지하면서도 그 역시 ‘컷전으로 홀리며’, 일부러, 그러니까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다. 저 타락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들 역시 탈정치적이되 그나마 중립적이며 말 그대로 건강한 소재인 ‘건강’에 관한 담론을 나눔으로써 시인은 최소한의 균형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시인 역시 ‘이야기’하고 말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인의 정직이고 겸손이며 이 시의 진실성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그가 ‘노래’했다면 이 시는 ‘이야기’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밖에 되지 못한다. ‘노래’의 세계, 그 순수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오죽 좋으랴만, 아프게도, 일상의 진실은, 우리가 별똥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쪽에 서 있다. 늙은 줄 알면서도 깊숙이 또 빠져드는 것, 그런 결말이 다소 책임 없어 보이고 어정쩡해 보인다 하더라도 혁명이 아니라 일상의 맥락에선 그것이 진실인 이상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혁명만이 아니라 일상도 권력이다. 아니, 일상의 권력이 더 무서운 법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 시가 과거의 순수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고 해서, 막연히 그 시대로 돌아가자든가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으로 귀결되면 그것은 순수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 되고 만다. 그것은 마치 지나간 옛사랑에 미련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파도, 어쩔 수가 없다. 지나간 사랑은 보내야 하듯 말이다. 따라서 이 시는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보다 현실에 대한 부끄러움,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그 삶의 진실을 주제로 삼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란 제목을 단 이유일 터이다.

이제 시인마저 ‘노래’를 버리고 ‘이야기’를 택했으니, 그렇다면 이는 노래의 패배이고 시인의 패배일까? 어느 면에서 ‘노래’란, 서정이란 철이

없는 장르이다. 그것은 정신의 내용을 자기표현의 형식으로 드러내는, 현재적이고 주관적이고 유아적인 것이다. 반면에 ‘이야기’란, 서사란 외부 현실의 형상화를 통해, 그것도 과거 시제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회상하게 하고 반성하게 만드는 성인의 문학이다. 지금 시인은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고통스럽게 각성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자. 최종적으로 그는 이 ‘이야기’를 시리는 ‘노래’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아니한가? 따라서 이 시의 내용상 긴장이 ‘과거’와 ‘현재’ 사이에 있다면 형식상 긴장은 바로 ‘노래’와 ‘이야기’ 사이에 있었던 것,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시의 성공은 그 긴장을 잘 유지한 데 있다. 그러기에 이 시는 시이되 시가 잘 주지 못하고, 이야기를 담되 소설이 전할 수 없는 감동을 한 편에 머금게 된 것이다. 흔히 이 시를 두고 서사적 서정시니 이야기시니 하는 말이 이러한 사정에 연유한다.⁷⁾

2. 서정과 서사 사이 : <탈향> 읽기

다음에 살펴볼 작품은 6·25 전쟁 당시 월남한 실향민의 애환을 그린 이호철의 <탈향>이라는 소설이다. 전쟁과 분단을 다룬 소설은 많지만 월남민의 문제에 주목한 이는 거의 없었다. 그 자신이 월남민 출신인 이호철은 당대 문단이 지나쳐 버리고 말았던 이 소재를 단단히 붙잡았다.

도대체 월남민의 삶과 설움이란 어떤 것일까? 1983년 KBS의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⁸⁾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감동의 드라마, 아니 한 편의

7) 이 외에도 이 작품과 관련해 상호텍스트적으로 살펴 볼 작품은 상당히 많다. 소시민의 일상성을 다룬 작품들은 물론, 4·19와 관련된 작품들, 그리고 시의 전만부는 신석정의 <꽃 덩굴>과 후반부는 김현승의 <플라타너스>와 대비해 볼 만하다. 한편 패러디 또는 오마주(hommage)에 가까운 최영미의 <또 다시 회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역시 한 번쯤 비교해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반면에 이문열의 소설 <아가(雅歌): 회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김광규의 시보다는 앞에서 밝힌 우리나라 변안 가요에 더 가까운 관계의 것이고, 똑같은 제목의 시이지만 안도현의 <회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단순히 화생들의 흥미 유발 차원에서 소개해 봄 적할 따름이다.

서사시였다. 당시의 생방송을 그대로 옮기면 그냥 시가 되었다. 황지우의 시 <마침내, 그 40대 남자도>는 시인이 마치 텔레비전 장면을 편집하고 해설하듯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이다.⁹⁾ 그러나 이런 만남도 흠어진 가족들이 그나마 모두 남한 땅에 살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 것이었다. 최근 남북한을 오가며 이산가족들이 상봉하게 되기 전까지, 북녘에 가족을 두고 내려온 월남민들은 KBS의 생방송 역시 그림의 떡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외로움도 사치에 불과할지 모른다. 혈혈단신으로 이북에서 내려온 그들에게 닥친 문제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였다. 이는 눈곱만큼의 감상도 허용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의 문제였다. 이호철의 <탈향>은 월남한 실향민들의 바로 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전면에 다룸으로써 돌아갈 기약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이나 찌는 감상주의와 확연한 차별을 구하는 데 성공한 작품이다(정호웅, 1992 : 64).¹⁰⁾

이 소설은 스물네 살 동갑의 ‘두찬이’와 ‘광석이’, 그리고 열아홉 살 ‘나’와 한 살 밑의 ‘하원이’,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은 저마다 ‘중공군이 밀려온다는 바람에 무턱대고 배 위에 올라타’ 월남을 한다. 배에서 만났을 때 이들은 ‘미칠 것처럼’ 반가워했다. 이들은 왜 무턱대고 배에 올라탔으며, 오랜만에 만난 사이도 아닌데 왜 이리 반가워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홍남 철수에 대해 알아야 한다.¹¹⁾

8) 지금의 중고등학생에게 이에 관한 배경 지식은 거의 없다. 1983년 여름, 당초 90분짜리 단발성 특집으로 기획되었던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은 바로 그 날부터 24시간 철야 방송으로 연장되었고, 이후 장장 138일 동안 생방송으로 이어졌다.

9) 필자는 황지우의 시와 더불어 설운도의 <잃어버린 30년>을 들려주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은 흥미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당대 역사의 문화적 코드를 공유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10) 그 밖에 이호철에 관한 주요 연구와 비평은 천이두 외(2001)에 잘 수록되어 있다.

11) 문학 수업이 역사 수업은 아니지만 문화유산의 전수를 위해 역사적 배경을 추체험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홍남 철수 작전을 알려면 인천 상륙 작전 이후 중공군의 투입과 그로 인한 포위망을 뚫기 위해 개마고원에서 홍남까지 철수해야 했던 미 해병대의 장진호 전투를 알아야 한다. 이 장진호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함께 세계 2대 동계 전투로 꼽힌다. 홍남 철수 작전은 12월 12일 시작되어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끝이 났다. 동원된 수송선만 모두 193척. 홍남 앞바다에는 13척의 미군 항공모함이 밤낮 없이 함포 사격과 공중 폭격을 퍼부었다. 철수를 끝내면서

원래 미군의 철수 작전에는 피난민 수송 계획이 없었다. 홍남으로 몰려든 피난민들은 바람벽도 없는 부두에서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뿐이었다. 살을 에는 눈보라가 쉽 없이 몰아쳤다. 민간인 철수는 홍남 철수의 막바지에 결정되었다. 남한과 일본에서 수송선과 상륙정이 올라왔다. 1000명 정원의 상륙정들이 5000명까지 승선을 시켰다. 미국의 화물선 빅토리 호는 1만 4000명을 태웠다.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한 일주일만 피했다 오면 될 줄 알았기에 나머지 가족들은 그대로 고향을 지킨 경우가 많았다. 그런가 하면 작전 시간의 제한상 드디어 수송선의 쇠문이 닫히자 필사적으로 매달리다가, 쇠문에 끼이고, 또는 바다에 빠져버린 피난민도 한둘이 아니었다. 불바다가 되어 버린 홍남 부두에 그들은 그냥 그렇게 남겨진 것이다.¹²⁾

이제 학생들은 왜 <탈향>의 인물들이 ‘무턱대고’ 배에 올라탔는지, 왜 ‘미칠 것처럼’ 반가워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전혀 확신할 수 없는 나날들, 그럴 때 사람들은 대개 대세를 따라 움직이게 마련이다. 미래는 모른다. 확실한 것은 오직 현재의 공포와 불안 뿐, 일단 타고 보자는 심사로 그들은 배에 ‘무턱대고’ 올라탔을 것이다. 그리고 힘겹게 오른 배에서 그들은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겨울 바다를 헤치며 남으로 흘러 내려오는 길, 이내 막막해지고 만다. 망망대해에 혼자 내버려진 듯한 순간, 그들은 극적으로 해후를 하게 된다. 이것은 결코 작가가 만든 인위적인 우연이 아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웬만하면 누구나 이 정도의 사연은 갖고 사는 법이다. 전쟁 중에는 이보다 훨씬 극적인 일도 무수히 일어난다. 전쟁 자체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극적인 현실이기

미군은 홍남 항구를 완전히 폭파시켜 버렸다. 이 작전을 통해 미군과 한국군 10만 5000명, 피난민 약 10만 명이 북한 지역을 탈출하게 되었다.

- 12) <탈향>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현인의 <군세여라 금순아> 같은 자료도 드물다. <전우여 잘 자라>, <경상도 아가씨> 등도 도움이 된다. 전쟁과 부산 피난살이를 가요사로 엮어 풀이한 이영미(2002)를 참고할 것.

때문이다.

그들은 부산 거리에 말 그대로 ‘부리어졌다.’ ‘부러지다’란 동사는 ‘(마소·수레·자동차·배 등에 실려 있는 짐이) 내려지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사전적 정의를 따르자면, 그들은 짐이었다. 그들은 화차간, 즉 밤새 정차해 있는 화물 기차간을 그 날 그 날의 거처로 삼는다. 처음에는 이런 경험도 좋은 거라며 자신들을 위로해 보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갈수록 아득해져만 갔다. 이에, ‘두찬이’와 ‘광석이’는 어른답게 제각기 다른 변통을 취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자 자기 혼자 살아남기도 벅겁다 보니 나머지 사람이 진짜 짐처럼 부담스러워졌다. 넷이 떨어지는 날이 죽는 날이라던 맹세는 금세 시효를 잃어갔다. 자연히 넷 사이는 멀어지게 됐다.

어느 날, 잠이 든 사이에 또 화차가 움직였다. 네 사람은 달리는 화차에서 각자 뛰어내렸다. 그 때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광석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팔이 깔린 채 기차에 끌려간 것이다. ‘두찬이’는 외면을 하며 그냥 반대쪽으로 가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 ‘하원이’는 목을 놓고 흐느꼈다. 냉정한 것은 ‘두찬이’가 아니다. 전쟁 통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버려야 했던 부모도 있다. 그러니 진실로 냉정한 것은 현실이다.

다음 시를 보라.

민간인(民間人)

김중삼

1947년 봄

심야(深夜)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의 바다

이남(以南)과 이북(以北)의 경계선(境界線) 용당포(浦)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를 삼킨 곳.

스무 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水深)을 모른다.

이 시의 1연은 긴장을 동반하면서도 아주 천천히 물살을 헤쳐 나가듯, 마치 2연의 첫줄마냥 사공이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읽힌다. 그 긴장과 고요를 뚫고 어린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필경 그의 부모는 그의 입을 막아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의 비밀이 되어 스무 몇 해가 지나도록 가슴에만 묻고 지내야 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의 비극을 이호철이나 김종삼은 조금의 과장이나 감상도 없이 냉정하고 담담하게 그려낸다. 그런데 그것이 훨씬 더 우리 마음을 아리게 한다.

‘나’는 왼팔 중동이 무 잘라지듯 동강이 난 ‘광석이’를 업고 화차로 들어왔다. ‘광석이’는 ‘두찬이’가 자기를 오해했다는 말을 남기고 이튿날 아침 죽는다. 술에 취해 밤늦게 돌아온 ‘두찬이’는 ‘하원이’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그날 ‘광석이’한테 왜 혼자만 갔느냐며 ‘나’를 원망한다. 그러면서 ‘두찬이’는 화차 안이 찌렁찌렁하도록 울어댔다. 이튿날 아침 ‘두찬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난다.

사흘쯤 지난 뒤, 어두운 화차간 속에서 하원은 지껄었다.

“야하, 우리 이케 폼대가리 자꾸 해서 돈 좀 쥐자. 그러구 저기 영주동 산 꼭대기애다 집 하나 짓자. (중략) 난 너두 두찬이 형처럼 그렇게 될까 봐 얼마나 떨언 줄 안. 광석이 아저씨두 맘은 좋은 쪽은 못 됐시야, 잉. 우린 동네 갈 쟈 꼭 같이 가자. 돈 벌어서. (중략) 이케 잠이 안 온다야. 우리 오늘 밤, 그냥 밤 새자. 술 마시까, 술?”

나는 그저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지껄이고 있었다.

“바람도 없이 내리는 눈송이여, 아, 눈송이여.”

무엇인가 못 견디게 그리운 것처럼 애탔다. 그러나 누가 알랴! 지금 내 마음 밑 속에서 일어나는 돌개바람 같은 것을……아, 어머니! 이미 내 마음은 하원이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순간 나는 입술을 악물었다. 외락 하원이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두 볼에 흘러내렸다. 하원은 호호호 웃었다. 지껄었다.

“이 새끼 술도 안 먹구 취헐. 참 부산은 눈두 안 온다 잉, 눈두. 이북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광석이 아저씨네 움물 말이다. 야하, 평장헌데. 새벽엔 까치가 울구, 그 상나무 있잖니. 장자골집 형수 잘 웃잖니. 하하하 하구. 그 형수 꽤나 부지런했다. 가마이 보문, 언제나 젤 먼저 물 푸

러 오군 하는 게 그 형수더라, 잉. 아하, 눈 보구 싶다, 눈이.”

누군들 고향이 그리지 않겠느냐만 거기에만 매여 사는 것은 현실 도피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 과거의 추억 속으로만 침잠하려는 경향은 이른바 ‘퇴행’이라 알려진 심리적 방어기제에 해당한다. 아 니나 다를까, 이 소설에서 유독 고향과 과거의 기억에 매달려 사는 ‘하원이’를 보면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든가 혹은 어린아이처럼 여겨진다. 그는 심리적 유아임에 틀림없다. 그에 반해 ‘두찬이’는 현실주의자다. 그는 현재를 더 중요시하며 추억보다는 생존에 전념한다. 그런 점에서는 죽은 ‘광석이’도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그 둘은 성인이다.

반면에 ‘나’는 ‘하원이’와 ‘두찬이’ 사이, 곧 고향과 타향, 과거와 현재, 추억과 생존, 유아와 성인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작품이 감상(感傷)의 요소는 있되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으며, 리얼리즘으로 일관하되 고향에 대한 향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각별한 위치에 있는 ‘나’를 서술자로 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이 작품의 성공은 시점과 거리의 미학에 기인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 같은 거리의 유지는 달리 보면 그 둘 사이의 긴장과 갈등에서 작품이 그저 어정쩡하게 끝날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곧 ‘나’로 하여금 그 둘 사이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참 어려운 선택이다. ‘하원이’를 버리려 할 때 일어났던 마음속의 ‘돌개바람’은 바로 그 두 세계, 고향의 훼손되지 않은 과거 유아의 세계와 생존 자체가 문제되는 현실의 성인 세계 사이의 충돌과 갈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사람은 누구나 유아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입술을 악물고 ‘하원이’를 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원이’는 마음속의 고향이었다. 그런 ‘하원이’를 버림으로써 ‘나’와 ‘두찬이’는 더 이상 ‘실향’이 아니라 ‘탈향’을 한 셈이 된다. 그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상실당한 것만이 아니라 탈향을 선택한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 소설

의 제목이 ‘실향’이 아니라 ‘탈향’임에 주목해 보자.

이러한 모진 선택은 결코 인간이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나약하고, 그래서 불안하다. 전쟁처럼 생존이 위협 받을 때면 더욱 그러하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¹³⁾ 진정으로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영혼의 상처였다. 비록 그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역사를 돌아보면 물질의 고난은 차라리 극복하기 쉬운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때 이후 지금까지 영혼의 상처로 고통 받으며 살고 있다. 전쟁은 인간을 파괴시킨다. 인간의 물질과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하고 만다. 그런 전쟁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곳에도 수많은 ‘두찬이’, ‘광석이’, ‘하원이’, 그리고 ‘내’가 있을 것이다.

<탈향>에 대한 해설은 이로써 일단 끝이 났다. 이제 앞서 다룬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떠올려 보면서 다음 대목을 읽어 보자.

다시 세 사람의 생활이 시작됐다. 광석이가 있을 땐 그래도 더러 웃을 때가 있었으나 요샌 피차에 통히 웃을 일이라고는 없었다. 나는 가끔 혼자서 노래 같은 것을 불렀다.

“흘러가는 구름 저편…….”

화차간이 찌렁하게 울렸다. 그것으로 나는 조금 기분이 풀렸다. 그러나 두찬이는 싫은가 보았다. 상을 잔뜩 찌그러뜨리고 나를 건너다보곤 했다. 그러면 나는 노래를 뚝 그쳤다.

원래 ‘나’는 ‘두찬이’와 맞지가 않았다. ‘나’는 노래가 좋은데 ‘두찬이’는 싫어했다. 술에 취해 ‘광석이’와 다투다가 ‘광석이’가 ‘남쪽 나라 십자성’을 부르자 그저 지지 않을 심보로 ‘신라의 달밤’을 부르던 ‘두찬이’였지만, 그 이후 그는 노래를 하지 않았다.

‘나’는 ‘두찬이’를 의식해야만 했다. ‘두찬이’는 ‘내’가 따라야 할 일종

13) 「자우림」의 김윤아가 부른 노래의 제목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 명제는 원래 독일의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Reiner Werner Fassbinder) 감독이 만든 영화의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의 현실 원리와 같다. 그래서 ‘나’는 노래를 그쳤다. 노래는 쾌락 원리처럼 ‘나’의 꿈과 욕망을 대변할 따름이다.

그러던 ‘내’가 이윽고 ‘두칸이’처럼 되어 ‘하원이’를 버릴 때 ‘나’ 역시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았다. 현실은 그런 것이다. 결말 부분에서 보듯, ‘나’는 “바람도 없이 내리는 눈송이여, 아, 눈송이여.”라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런 말을 지껄이고 있었다.”라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사만 남고 곡조가 사라진 것이다. 아마도 시간이 더 지나면 그나마 가사마저도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

이 대목에서 앞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다루면서 ‘노래’와 ‘이야기’에 주목했던 점을 떠올려 보자. 노래는 감정적이어서 그 감정이 환기하는 분위기를 통해 우리를 쉽게 지배한다. 노래는 사람을 잘 젖어들게 만든다. 하지만 현실은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다. 그런 점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노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이든 <탈향>이든 현실은 우리에게서 노래를 박탈해 가고 그것을 성장이라 이름 한다고 슬쩍 고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달리 말하자면, 두 작품은 모두 한편으로 잃어버린 노래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선택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현실의 냉정함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탈향>에서 ‘하원이’에 대한 인정을 버리고 현실의 논리를 좇아 ‘하원이’를 버리게 되는 ‘나’의 선택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에서 ‘혁명’에 대한 열정을 버리고 현실에 젖어들어 ‘월급’과 ‘물가’를 걱정하게 된 ‘우리’의 선택과 쌍둥이나 다름없다. 그것이 하나는 혁명을, 하나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두 작품 간의 사이와 차이이다.

3. 시와 소설 사이 : <면민회의 날> 읽기

그렇다면 과연 <탈향>의 인물들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탈향> 속 인물들의 후일담을 듣게 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 <탈향>과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를 만나게 하면 어떨까? 두 개의 작품을 머릿속에서 합쳐 보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

면민회(面民會)의 날

송수권

우리 청산포 사람들
죽지 않고 살다 보면 꼭두 일 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들 만나는군.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라는데
우리 죽지 않고 살아 만나는 게 이게 어딘가
철수, 용복이, 상철이, 또 내 아는 국민학교 동창들
갓 20대 안팎으로 여드름을 달고 와서
어른이 되고 호주가 되고
대물림 끝에 외톨박이로 떠돌던 놈들,
이젠 제법 출세도 했다.
희끗한 머리에 장군이 되고 사장이 되고
과장, 계장, 주사 하다못해
교회당 종지기 노인의 아들이었던
끝남이도 어엿한 목사가 되었다.

우리 청산포 사람들,
창경원의 벚꽃이 함빡 구름처럼 피는 날
명함을 박지 못한 놈들만 구석지에 모여
언제나 기가 꺾였다.
저희들끼리 키득거리고 술잔을 얹었다.
가설무대에서 마이크가 울고
삼류 가수보다 못한 군세이라 금순이가 울고
홍남 부두에 눈발이 쳤다.
새로 바뀐 전화번호를 적고 번지수를 건네받다 보면
새로 끼인 얼굴도 한들,
산 속의 땡땡이 넝쿨처럼 모진 인연들만 얹히고설킨다.

이자 돈에 차용증 재판 건이 나오고
저희들끼리 치고받았다.

우리 청산포 사람들
막판엔 면장이 나서서 인사말에
우리 청산포 아바이들, 힘주어 수십 번도 더 들먹거렸고
언제나 그랬듯이 총무란 작자가
회관건립기금 기부자 명단을 호명하면
코빼기도 안 보인 장군이다 사장이다
출세한 놈들의 이름자만 거드름을 피웠다.

이 모임도 이젠 시들해졌군
누가 탄식을 했고
변질됐어 중간나 새끼들!
누가 맞받아 응수를 했다.

아, 결국은 조금씩 취해서 돌아오는 길
못난 놈들만 고향냄새를 풀어 놓고 돌아오는 밤길
해마다 이맘때면 구로공단 막바지 언덕길엔
하늘 높이 둥근 달이 떠서
내 고향 성천강 물소리만 귀에 부서졌다.

— 『지리산 뽕꼭새』, 미래사, 1991

4·19 대신에 6·25를 대입하여 김광규가 새로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이하 <희미한>)를 썼다면, 아니 이호철이 <탈향>의 속편을 시로 썼다면, 바로 이와 같은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면민회의 날>의 ‘면민회’나 <희미한>의 ‘동창회’나 매한가지다. 거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 만나는’ ‘청산포 사람들’이나 배 위에서 죽지 않고 살아 만나는 <탈향>의 주인공들이나 미칠 것처럼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지금 그들은 모두 20대 시절을 회상한다. 특히 <면민회>의 ‘20대 안팎으로 여드름을 달고’ 내려온 ‘철수, 용복이, 상철이’는 ‘두찬이, 광석이,

하원이'와 그대로 일치한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정말 '산 속의 땀방이' 넘쿨처럼 모진 인연'들이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 '면민회'에서 다시 만난 이들, 청산포 사람들은 <희미한>의 친구들과 똑같이 새로 바뀐 전화번호를 적는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월남해서 내려와 너나 할 것 없이 고생만 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다. '외톨박이로 떠돌던 놈들'이 '이젠 제법 출세도' 한 놈도 있고 '구석지에 모여' 술잔이나 나누는 '명함을 박지 못한 놈들'도 있다. 이는 <희미한>으로 말하자면 '포우커'를 하러 간 부류와 '달력'을 끼고 허전하게 동송동을 건던 부류에 해당할 것이고, <탈향>으로 상상하자면 아마도 전자가 '두찬이', 후자는 '하원이'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하여 '거드름'을 피우는 '두찬이'를 바라보며 '하원이'는 '변질'된 '중간나 새끼'라 한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바로 이 <면민회의 날>의 시적 화자이다. 그는 여전히 '두찬이'와 '하원이'를 한결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위 시의 마지막 연이다. 그것은 <탈향>과 <희미한>의 종결부를 그대로 겹쳐 찍은 것처럼 느껴진다. 이 시의 시적 화자 역시 <희미한>의 화자처럼 별로 출세한 것 같지는 않다. 추정하건대 그의 집은 '구로공단 막바지 언덕길'에 있는 것 같다. 피난 시절, '영주동 산꼭대기' 집만 해도 바랄 게 없었던 그들, 다른 이들은 출세도 많이 했건만 그는 여전히 공단을 벗어나지 못한 신세로 보인다. 조금씩 취해 돌아오는 밤길, 고개를 떨구게 했던 플라타너스<희미한> 대신, 구로공단 언덕길엔 그날따라 하늘 높이 둥근 달이 떠 있다. 언제나 그렇듯 '못난 놈들만' 고향의 옛 시절이 그리울 뿐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순수한 마음을 견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원이'를 버렸지만 그래도 눈물을 견디지 못했던 '나', 고향의 '눈송이'가 그림던 그들이었다. 고향의 '눈'과 '우물'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끝이 난 <탈향>처럼, <면민회의 날>이 고향의 '성천강 물소리'가 귀에 부서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¹⁴⁾

Ⅲ. 맺음말

문학교육의 독자적 관점에서 문학교육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것은 먼저 문학교육 자체의 내부 논리와 필요가 존재하고 그에 대응하는 내용과 지식을 생산하는 작업을 전제로 한다. 본고는 머리말에서 밝힌 것처럼 문학교육의 현실, 곧 문학교육 내부의 논리에 의거해 문학 현상을 바라보고 그로부터 교육의 내용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본고가 문학교육 내용론(김대행, 2002)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¹⁵⁾

하지만 그 같은 독자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문학 연구자 이상으로 문학 텍스트 연구에 정통해야 한다. 그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독자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문학 및 문학 연구의 결과로서만 문학교육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교육의 결과로서 문학이 존재한다고 할 때(정재찬, 2003) 이 양자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선언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교수학적 변환을 포함하여 교육 현장에의 투입을 염두에 둔 구체적 성과물들이 나와야 한다. 텍스트 능력 신장이 중요하고 상호텍스트 교육이 필요하다는 선언적 당위의 담론은 이미 충분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본고는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탈향>,

14) 텍스트와 텍스트가 만나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 내는 듯한 이 세 편의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의 예를 들면 된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오락 프로그램 <브레인 서바이버> 중에는 화면 양쪽 끝에서 두 개의 그림이 점점 중앙으로 다가오는데, 그 두 그림이 합쳐지면 과연 어떤 그림이 될까 하는 것을 맞추는 게임이 있었거니와 우리 일상에도 그런 예는 많다. 케이[K]와 에스[S]가 만나 케이에스 마크[㉿]가 되는 것처럼 디자인 계통에서는 기본적인 일이고, 가요계를 비롯한 음악계에서는 두 곡을 하나로 편곡하거나 리메이크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가까운 예로, 인터넷에 떠도는, 주영리의 <Tonight>과 핑클의 <영원>을 합친 음악을 들어 보라. 메들리처럼 한 곡 한 곡이 아니라 한 소절 한 소절이 이어지는데도 어색함은커녕 하나의 새로운 곡을 듣는 듯한 절묘한 느낌을 준다.

15) 본고의 관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교육 내용 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으로는 김성진(2004), 김정우(2004), 정정순(2005), 황혜진(2006) 등을 들 수 있다.

<면민회의 날> 이 세 텍스트를 각각, 그리고 함께 겹쳐 읽는 시도를 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텍스트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제기하기도 하고 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기도 하였거니와 이는 문학을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산이었다고 생각한다. 김광규와 이호철과 송수권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는 것은 국문학계에서는 아마도 난센스에 가까울지 모른다. 하지만 텍스트 및 상호텍스트 능력, 그리고 서정과 서사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문제의식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러한 텍스트 연구가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매우 유의미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문학교육적 연관과 문학사적 연관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보았다.

본고는 섭렵과 주해 일변도로만 이루어지는 우리 문학교육의 전통적인 모습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이해되어도 좋다. 교육과정이나 교재, 수업 구성의 체계와 방식이 반드시 시대별 장르별 혹은 주제별로 텍스트를 나열하고 그 각각을 섭렵하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위의 세 텍스트가 하나의 수업 단원을 구성하는 교육과정과 교재를 생각해 보면 된다. 그러한 체계와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기존의 체제보다 더 가치 있고 생산적임이 증명되길 기대한다.*16)

* 본 논문은 2007. 6. 15. 투고되었으며, 2007. 7. 11. 심사가 시작되어 2007. 7. 27.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대행(2002),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 10집,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 김상욱(1998), 시의 길을 여는 새벽별 하나, 푸른나무.
- 김성진(2004), “비평 활동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김정우(2004), “시 해석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김홍규(1982), 『한국 현대시를 찾아서』, 한샘.
- 성민엽 편(2001), 『김광규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 신경림(2000),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우리교육.
- 안은희(2002), “김광규 시의 일상성 연구”, 경희대석사학위논문.
- 이미순(2004), “1980년대 한국 일상시에 대한 연구”, 『개신어문연구』 21집, 개신어문학회.
- 이영미(2002), 『홍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황금가지.
- 정재찬(1995), “문학교육의 지배적 담론과 신비평”, 『현대비평과이론』 10호, 한신문화사.
- 정재찬(2003), 『문학교육의 사회학을 위하여』, 역락.
- 정재찬(2006), “현대시 교육의 방향”, 『문학교육학』 1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역락.
- 정정순(2005), “시적 형상성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정호웅(1992), “탈향, 그 출발의 소설사적 의미”, 『문학정신』 69호.
- 천이두 외(2001), 『이호철 소설의 일반론 및 작품론』, 새미.
- 한계전(1996), 『한국 현대시해설』, 관동출판사.
- 홍윤경(2002), “김광규 시의 일상성 연구”, 동국대석사학위논문.
- 황혜진(2006), “가치경험을 위한 소설교육내용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초록>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현대시 교육 연구

정재찬

현대시 교실은 여전히 작품의 섭렵과 주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학생들의 텍스트 능력, 특히 상호 텍스트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실제 중심과 속성 중심, 그리고 활동 중심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감상하며 나아가 문학 및 문화 텍스트와의 상호 텍스트성을 강조하는 교육용 시 텍스트 해설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투입되어 실천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교수학적 변환을 포함하여 다양한 흥미로운 해설을 덧붙였다.

본고는 김광규의 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이호철의 소설 <탈향>, 그리고 송수권의 시 <면민회의 날>을 각각, 또 상호 교직하여 읽어 넘으로써 작품의 새로운 의미와 더불어 작품 간의 놀랄 만한 관계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본고는 특히 작가들의 문학적 지향이 서로 다르고 문학사적으로도 서로 별 연관이 없어 보이는 텍스트들이 문학교육적으로는 매우 유의미한 연관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궁극적으로 문학교육의 독자적 관점에서 문학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길 바란다.

본고는 섭렵과 주해 일변도로만 이루어지는 우리 문학교육의 전통적인 모습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이해되어도 좋다. 교육과정이나 교재, 수업 구성의 체계와 방식이 반드시 시대별 장르별 혹은 주제별로 텍스트를 나열하고 그 각각을 섭렵하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위의 세 텍스트가 하나의 수업 단원을 구성하는 교육과정과 교재를 생각해 보면 된다. 그러한 체제와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기존의 체제보다 더 가치 있고 생산적임이 증명되길 기대한다.

【핵심어】 텍스트 능력, 상호텍스트성,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탈향, 면민회의 날, 문학교육 내용론, 문학교육의 대안과 실천

<Abstract>

Teaching Poetry through Intertextuality in the Classroom

Jeong, Jae-chan

Our literature education still sticks to the system so called “coverage and exegesis” of literary canons. Beneath this system there lies a belief and a premise that reading every great text with analysis would let our students to develop reading skills and to enhance their textual power. However most of students are complaining that reading poetry is too difficult and even they could not understand another poem of the same poet that was already taught. It shows that the system cannot work as well as we expected and fails in giving them textual and inter-textual power.

This study tried to provide an educational expository essay which has a wide and profound appreciation about text with a synthetic view point including substance-based, property-based and activity-based approaches. Eventually it emphasized intertextuality not only among literary texts but also among cultural texts.

I analyzed three literary texts, <The Misty Shadow of a Bygone Love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by Kim Kwang-gyu(김광규), <Leaving Hometown (탈향)> by Lee Ho-cheol(이호철), and <The day of Township(면민회의 날)> by Song Su-kwon(송수권), reading each by each and all together. Then I found there is a very interesting and remarkable relationship among them. Even though those authors have different orientations and seem not to have any influential relation to each other, the three texts show us as if they are a set of series. The first and the second shows common concern on ‘song’ and ‘story’ that means not only the ‘lyric’ and the ‘narrative’ but also the romanticism and the realism. And if the first and

the second are mixed together, the third would be made like a chemical change. Even though I used my literary knowledge to read the texts, my discovery such as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e irrelevant texts owes to the viewpoint of the study of literary education. It proves that the pedagogical approach to literature can produce the pedagogical contents independently from the literary studies.

There could not be the only one way to teach poetry like coverage and exegesis. Therefore, this study might be recognized 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system of our literature education. Teaching poetry through intertextuality will help our students understand not only the relationship among texts but also each text.

【Key words】 textual power, intertextuality, <The Misty Shadow of a Bygone Love(회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Leaving Hometown(탈향)>, <The day of Township(면민회의 날)>, alternative curriculum of literature education, the content study of literary education